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4일 서울 마포구 저축은행중앙회에서 열린 ‘금융감독원장-저축은행 대표 간담회’에 참석해 기념촬영 하고 있다.

/손진영 기자 son@

“부실 PF정리 등 건전성에 만전 금융소비자 보호, 최우선 과제”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11개 저축은행 CEO들과 간담회
“서민금융 확대 인센티브 마련
영업활성화 위한 규제합리화 추진”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저축은행 CEO들과 첫 상견례 자리에서 부동산 PF 위주의 단기 수익 추구를 경계하며, 서민·중소기업 자금 공급이라는 본연의 역할을 주문했다. 특히 예금자보호 한도 상향에 따른 자금 이동 가능성을 언급하며 금융사고 리스크와 소비자보호 강화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4일 이 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저축은행중앙회에서 11개 저축은행 CEO들과 가진 간담회 자리에서 “잔여 부실 PF 정리 등 건전성 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달라”며 “영업규제 완화 논의는 건전성 우려가 불식된 뒤 가능하다”고 말했다. 단기 수익성에 치중한 PF 여신이 업권 건전성을 악화시켰다는 진단과 함께, 중장기적 영업 기반 강화와 자본 확충 등 손실흡수 능력 제고를 당부했다.

이 원장은 “금감원도 서민금융 확대를 위한 제도적 인센티브를 마련하고 영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 합리화도 지속 추진하겠다”며 업계의 건전성 관리 노력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저축은행 주 고객이 서민·중소기업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금융소비자보호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 달라”고 했다. 금융상품 설계·판매·사후관리 전 단계에서 소비자 관점을 고려해야 신뢰를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예금자보호 한도 상향에 따른 자금 이동 가능성을 언급하며 경각심을 촉구했다. 이 원장은 “이달부터 시행된 예금자보호 한도 상향에 따라 저축은행 거래금액이 커지면서 금융사고 발생 시 고객 피해도 커질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 달라”고 말했다.

실제 업계에서는 한도가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높아지면서,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은 저축은행으로 시중자금이 이동하는 ‘머니무브’가 일어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저축은행중앙회에 따르면 지난 1일 기준 79개 저축은행의 12개월 정기예금 평균 금리는 2.99%로, 시

중은행보다 약 0.4%포인트 높다.

이 원장은 또 “저축은행을 이용하는 금융소비자들이 채무조정요청권, 금리 인하요구권과 같은 유용한 제도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보다 적극적으로 제도 활용을 안내해 고객들이 본인의 권리를 충분히 누리도록 배려해 달라”고 말했다. 이 밖에도 보이스 피싱·불법계좌 개설 등 금융범죄 취약성을 언급하며 “안전인식시스템, 해외거래 차단 서비스 등 보안 인프라를 적극 도입해 달라”고 주문했다.

저축은행 업계는 “포용적 금융 확대와 중소기업·자영업자 선별 지원을 통해 생산적 금융 활성화에 기여하겠다”며 “하반기에도 부실 PF 정리와 건전성 개선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다만 “비대면 경쟁 격화와 신성장동력 약화 등 경영 여건상 애로가 크다”며 금융당국의 정책적 지원도 요청했다.

이 원장은 “간담회에서 제안된 의견을 충실히 검토해 감독·검사 업무에 반영하겠다”며 “업계와의 소통을 이어가며 애로 해소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허정윤 기자 zelkova@metroseoul.co.kr

SK하이닉스, 인상률 6% 임금협상 마무리

영업이익의 10% 성과급 지급키로

SK하이닉스가 지난 5월부터 진행된 임금 교섭을 마무리했다.

SK하이닉스는 임금인상률 6%와 새로운 성과급(PS) 기준을 담은 임금교섭 잠정 합의안이 노동조합 대의원 투표를 통해 타결됐다고 4일 밝혔다.

이번에 타결된 합의안은 매년 영업이익의 10%를 성과급으로 지급하되 개인별 성과급 산정 금액의 80%는 당해년도 지급, 나머지 20%는 2년에 걸쳐 매년 10%씩 지급하는 방식이다.

올해 SK하이닉스 영업이익 전망치는 최대 39조원 안팎으로 예상되는 만큼, 직원들은 올해 3조1200억원을 포함해 3년에 걸쳐 총 3조9000억원의 인센티브를 받을 전망이다.

SK하이닉스 관계자는 “회사의 경영 성과와 개인의 보상 간 직접적 연계를 명확하고 투명한 기준으로 정립함으로써 시스템(제도) 경영을 통한 보상의 내적 동기부여를 극대화했다”라며 “성과급의 일부는 2년에 걸쳐 이연 지급해 회사의

재무건전성과 보상 안정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윈윈 효과를 얻게 됐고, 이는 회사와 구성원 모두가 장기적 성장 관점에서 접근한 사례”라고 말했다.

또 10년간 기준을 유지한다는 원칙으로 제도의 장기적인 지속가능성과 회사와 구성원 간 신뢰를 확보했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이를 통해 매년 반복되는 논란을 원천적으로 제거하고 구성원이 일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기준 정립 과정에서 구성원의 직접 참여와 제안, 토론으로 합의를 이루며 ‘SK의 기업문화’가 지닌 근원적이고 차별적인 경쟁력을 재확인했다.

이번 합의는 내부적으로 회사 성과의 파이(규모)를 키우자는 동기 부여 효과와 더불어 고성과자에 대한 보상 확대 등 성과주의에 기반한 보상 체제를 강화해, 우리 사회의 의대 선호 현상을 전환시키며 국내외 이공계 우수 인재를 확보, 유지하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차현정 기자 hyeon@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중소기업인과 함께하는 정책 간담회’에서 (앞줄 왼쪽 4번째부터)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중기중앙회

“830만 中企·소상공인 위한 정책 기대”

중기중앙회-더불어민주당 간담회

김기문 회장 “한미 ‘마스가’ 타결
중소조선기자재 업계 기회될 것”

정청래 대표 “대기업·중소기업 간
갑질·기술탈취·불공정 개선 노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이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만나 “미국의 고관세 정책으로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에 50%의 관세가 부과되고 있는데 중소기업자재 및 부품 업체가 수출 시 피해를 받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달라”고 요청했다.

김기문 회장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열린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중소기업인과 함께하는 정책 간담회’에서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타결된 마스가(MASGA)가 중소기업자재 업계에도 새로운 기회가 될 것 같아 기대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정청래 대표는 취임후 첫 경제단체 방문지로 전날 소상공인연합회를 찾은 데 이어 이날엔 중기중앙회로 발걸음을 옮겼다.

김 회장은 “당대표가 되면 대기업들 먼저 만나는 경우가 많은데 소상공인과 중소기업계를 우선해 찾은 것은 의미있는 일”이라면서 “민생경제 악화로 지난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100만명 넘게

폐업했다”며 분위기를 전했다.

그러면서 “정기국회가 시작됐는데, 민주당에서 830만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 주시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정 대표는 “정부여당에서 여러분들이 자신감 있게 사업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게 매우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든다”면서 “민주당은 중소기업 발전을 위해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갑질 관계, 기술 탈취, 위수탁 관리 불공정 등을 개선하고자 앞으로 많은 노력을 하겠다”고 화답했다.

중소기업계가 건의한 철강·알루미늄 분야에 대한 “중국이 한국에 저가 공세를 해서 이중삼중으로 고통 받는다고 들었다”며 “이런 부분은 중소기업인들만의 노력으로는 극복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정부여당에서 함께 지혜를 모아서 저가공세를 어떻게 끊을지 고민해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중소기업계는 이날 정 대표에게 ▲고관세 등 통상문제 관련 중소기업 현안 ▲노조법상 사용자 정의 등 명확화 및 사용자 방어권 도입 ▲건설업 생산구조 공정화 통한 산재예방 및 품질제고 ▲상법 개정 관련 입법 보완 ▲고령인력 계속고용 자율성 보장 및 인센티브 확대 ▲대·중소기업간 제값받기 환경 조성 ▲중소기업 성장·육성 지원 등을 건의했다.

/김승호 기자 bada@

리튬메탈전지 ‘12분 급속충전’ 기술 개발

LG에너지솔루션-KAIST

1회 충전 800km, 누적주행 30만km
연구결과 학술지 ‘네이처에너지’ 게재

LG에너지솔루션과 카이스트(KAIST)가 차세대 배터리로 꼽히는 리튬메탈전지의 충전 속도를 획기적으로 단축할 수 있는 기술 개발에 성공했다.

양측 연구팀은 1회 충전에 800km 이상 주행, 누적 주행거리 30만km 이상의 수명을 확보하면서 충전 시간을 12분까지 단축할 수 있는 리튬메탈전지 연구 결과를 세계적인 학술지 ‘네이처 에너지(Nature Energy)’에 게재했다고 4일 밝혔다.

LG에너지솔루션과 KAIST는 지난 2021년 리튬메탈전지 원천기술 확보를 위해 공동연구센터 ‘프론티어 리서치랩(FRL)’을 설립한 이후 꾸준히 연구 성과를 발표해왔다. 이번 성과는 2023년 동일 학술지에 게재된 ‘저부식성 붕산염-피란(borate-pyran) 액체 전해액 기반

리튬메탈전지’의 후속 연구다. 당시 방전 효율과 에너지 밀도를 개선한 데 이어 이번에는 리튬메탈전지의 가장 큰 난제였던 충전 속도 문제를 진일보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리튬메탈전지는 기존 리튬이온배터리의 흑연 음극을 리튬메탈로 대체해 무게와 부피를 줄이고 에너지 밀도와 주행거리 대폭 늘릴 수 있는 차세대 배터리로 주목받아왔다.

실제 이를 적용하면 고성능 전기차 주행거리를 평균 600km에서 800km 이상으로 향상시킬 수 있다. 그러나 충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덴드라이트’(dendrite·나뭇가지 모양의 결정) 현상으로 안정성과 수명 확보가 어려웠고, 특히 급속충전 시 덴드라이트가 심화돼 내부 단락을 유발하는 것이 상용화의 최대 걸림돌로 꼽혀왔다.

FRL 연구진은 급속 충전에서 덴드라이트가 형성되는 근본 원인이 리튬메탈 표면의 불균일한 계면 응집반응 때문임

을 규명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응집 억제형 신규 액체 전해액을 세계 최초로 개발했다. 새 전해액은 리튬 이온과의 결합력이 약한 음이온 구조를 활용해 계면 불균일성을 최소화하며, 급속 충전 상황에서도 덴드라이트 성장을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 있다.

이 기술은 높은 에너지 밀도를 유지하면서도 기존 리튬메탈전지의 약점이던 느린 충전 속도를 극복해 급속 충전에서도 안정적인 구동을 가능하게 한다. 특히 충전 시간이 12분으로 단축되면서 차세대 전기차 배터리 상용화를 크게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제영 LG에너지솔루션 전무는 “LG에너지솔루션과 KAIST가 FRL을 통해 이어온 지난 4년간의 협력이 유의미한 성과를 창출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산학 협력을 더욱 강화하여 기술적인 난제를 해결하고 차세대 배터리의 분야에서도 최고의 성과를 창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원관희 기자 wkh@